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브리핑 nabo Briefing
2019. 8. 13. 제60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2013년 3.1% → 2018년 3.8%)에 있고, 2018년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미가입자가 21.8%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실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통해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고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직접일자리사업과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전망 주요 제도의 재원 배분, 전달 체계,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국회 예·결산 업무 지원

고용안전망의 확충 사업의 대상 및 유형

지원 대상	실업자·미취업자
지원 유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고용안전망의 확충 사업의 예·결산 현황

	2018년(추경)	2019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8,965억원	1조 3,460억원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6조 8,223억원	7조 9,160억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1조 5,802억원	1조 6,089억원
직접일자리	1조 1,850억원	1조 6,029억원
전체	10조 4,840억원	12조 4,73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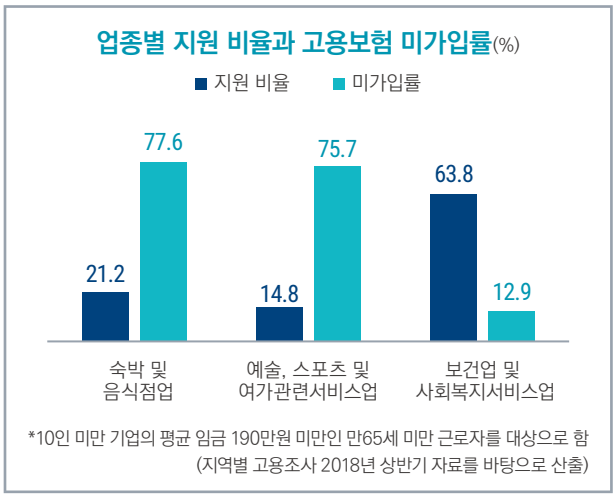
*[분석범위] 일반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사업으로 한정하고, 봉사활동, 사회서비스 제공, 공공업무 지원 목적의 직접일자리사업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

NABO브리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의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Ⅰ. 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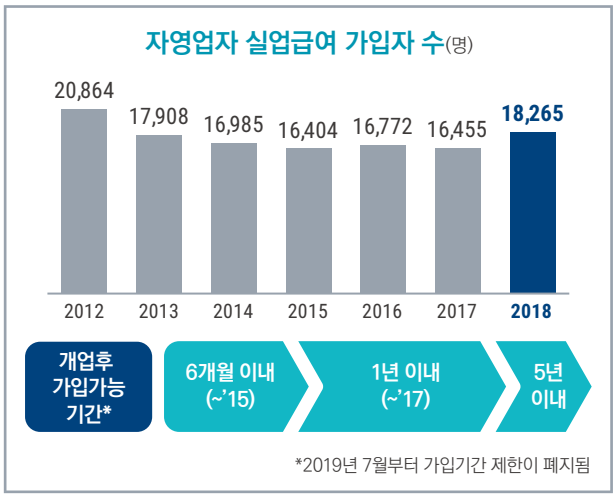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효과성 제고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지 않음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가입 가능 기간은 완화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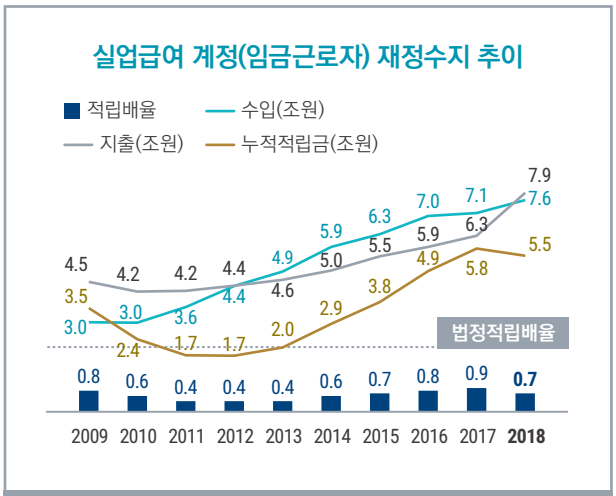


개선방안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필요

Ⅱ.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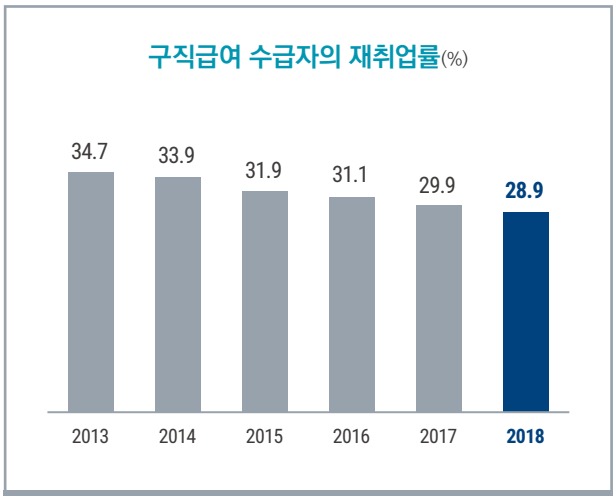
2018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적립배율(1.5배 이상~2배 미만)에 미달



대량의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여유자금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2013년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재취업률은 34.7%였으나, 매년 하락하여 2018년 28.9%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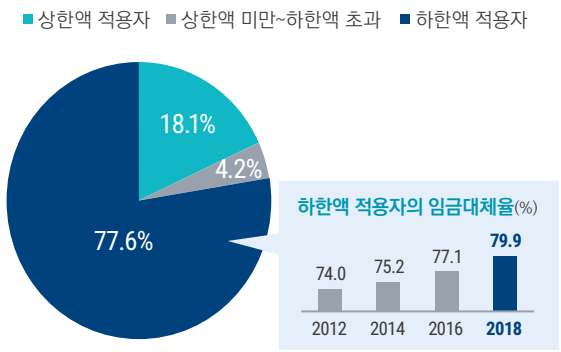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

3. 구직급여 제도 운영: 임금대체율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의 77.6%(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하한액 적용자의 임금대체율이 점차 증가하여 79.9% 수준

급여 수준별 구직급여 적용자 비중(%)



4. 구직급여 제도 운영: 반복수급자

2018년을 기준으로 수급기간 만료일 직전 3년간 구직급여를 2회 수급한 사람 중 실직 전과 같은 사업장에 근로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의 비율이 12.3%

동일사업장 근로 후 구직급여 반복(2회) 수급자 비중(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반복수급자 (A)	149,887	147,028	146,323	160,223
실직전과 같은 사업장 근로자(B)	17,919	18,421	19,061	19,680
비중 (B/A)	12.0	12.5	13.0	12.3

개선방안 구직급여의 최대 지급 기간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한액 적용자와 반복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Ⅲ.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고용서비스

1.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2019년 2월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유형은 15개(지자체 일자리센터 포함 16개)로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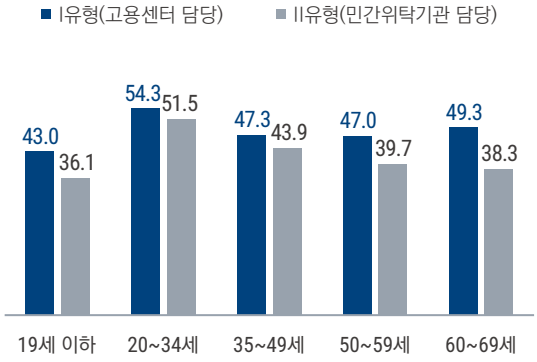
고용서비스 기관별 평가 현황(예시)

고용서비스기관	서비스 제공 대상	평가 주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반구인·구직자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50세 이상 구직자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0세 이상 재직자 (퇴직예정자포함) 및 구직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족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65세 이상 노인	자체 평가
지자체일자리센터	일반구직자	행정안전부

2.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은 고용센터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역량이 높은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율(12개월 기준)이 낮음(2018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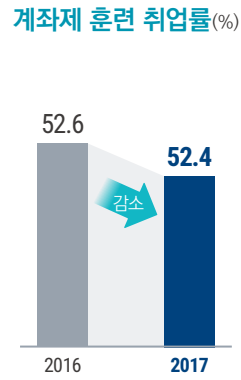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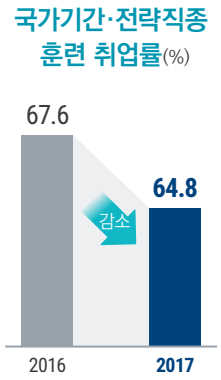
개선방안 고용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기관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Ⅳ.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1. 직업훈련의 취업률 성과

내일배움카드를 기초로 운영되는 계좌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모두 2017년 참여자의 취업률이 2016년 참여자에 비해 감소





2. 계좌제 훈련의 품질 제고

참여자 비중이 높은 계좌제 훈련 분야 중 취업률과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분야가 있음

계좌제 훈련 분야별 취업률과 임금 수준

훈련분야 (NCS 대분류 기준)	참여 비중(%)	취업률(%)	임금수준(원)
경영·회계·사무	26.4	53.8	1,712,368
보건·의료	19.8	57.6	1,399,704
음식서비스	15.6	45.0	1,556,945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0.1	50.3	1,579,746
전체 (23개 분야)	6.1	50.6	1,643,896

*참여 비중 상위 4개 분야

개선방안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직업훈련이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을 제고할 필요

Ⅴ. 미취업자·실업자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1.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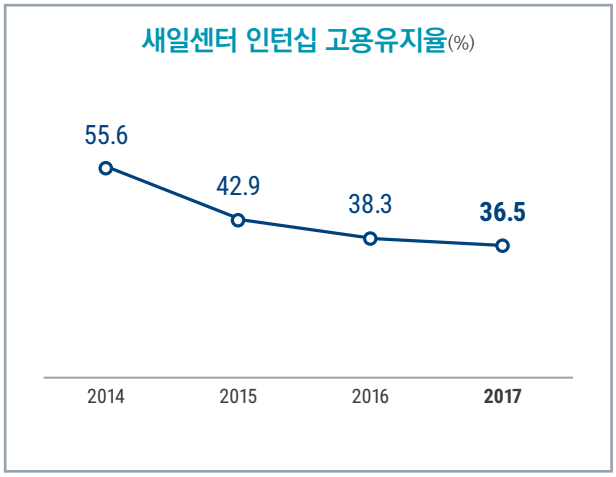
일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낮고 반복참여율*이 높음

부처	사업명	취업률	반복 참여율	노인참여율 (65세 이상)	취약계층 참여율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35.8	6.8	23.8	67.6
환경부	상수원관리 지역관리	15.9	3.8	38.0	39.6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8	9.1	37.0	41.6
	환경지킴이	19.9	23.0	17.2	66.7
산림청	숲가꾸기	23.4	35.2	52.4	60.2

* 반복참여율: 참여자 중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180일 초과) 참여한 사람의 비율

2. 인턴형 직접일자리사업 내실화

새일센터 인턴십의 경우 고용유지율(12개월 기준)이 감소 추세



개선방안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특성별로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필요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담당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문의 | 02-788-377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